광주 빛고을포교원 문 열다

화엄사,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현장서 개원식

광주 광산구 상업지구 위치
덕문 스님 "시대변화 반영"
개원식 500여 명 참석, 성황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는 11월 20일 광산구 현장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사찰이 문을 열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을 개원하고, 열악한 광산구 지역 포교에 나섰다.

이날 개원한 빛고을포교원은 하남3지구 아파트 등 주거전용 단지와 하남산업공단이 경계로 있는 광산구의 신흥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형 쇼핑몰의 입점이 예정된 중심지다.

도심포교를 염원하는 이날 개원식에는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화엄사 말사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과 광주지역 100여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자공 스님, 백양사 무공 스님, 대흥사 법상 스님 등 스님들과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명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참으로 환희심이 나고 기쁜 날이다. 빛고을포교원은 앞으로 광주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법당이 하나 생기면 복전이 생기는 것이다. 스님이나 신도들이 기도를 통해 '복을 만드는 전당' 이 되어 앞으로 광주 발전을 이끄는 도량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덕문 스님은 개원 인사말에서 "빛고을 광주에 화엄세상 법음을 전할 '빛고을포교원' 을 개원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화엄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문화재 보고이기도 하지만 현재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도심포교당을 세우게 됐다. 불교 가치와 사상을 현대문화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광주 각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사 도심포교는 11월 4일 부산 해동용궁사가 화엄사 말사로 등록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화엄사는 향후 순천, 여수 등 전남 중부권 도시에 포교당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빛고을포교원은 30여 년 전 종원 스님 원력으로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 매입을 시작했지만 불사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9년 본격적인 개원불사가 시작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전체 720평의 공간에는 전통미를 살린 현대적 공간이 구성됐다. 지하 147평 공간에는 카페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입식 공양실과 대청마루, 잘 꾸며진 화계마당이 자리한다. 1층은 종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삼존불과 삼천불을 모신 대웅전, 삼성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150평 규모의 2층에 마련됐다.

해동용궁사, 상생 도량으로 성장

지역 독거 어르신 및 그룹홈 아동 위해 쌀 전달



해동용궁사가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이웃을 위한 나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동용궁사는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500kg, 전북지역본부 500kg 등 총 1000kg으로 그룹홈에 위탁된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해동용궁사 성오 스님,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장, 김경환 전북지역본부장, 이현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과장, 강양숙 부산 그룹홈 지원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은 "위기가정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따뜻한 겨울나기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주지 연규 스님 취임 후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6일에는 기장군 동암마을 노인회관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백미 600kg을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부산시와 기장군 소외 이웃에게도 쌀을 전달하기 위해 보시를 받고 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상생' 을 사찰 운영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이산에 펼쳐진 불교전통예술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11월 18일 제2회 태고영산문화재전을 봉행했다. 마이산 탑사 특별무대에서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이 동참해 대령, 관욕에 이어 천수바라, 사다라니로 이어지는 상주권공, 영산작법보유자 영산스님의 도량게 작법, 범패 보유자 혜정스님의 화청, 종사영반, 성흥사 주지 보위스님의 승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원암당 혜명 대종사 49재 추모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헌화, 추모사, 팝페라 그룹 '카르페디엠' 의 추모공연, 살풀이, 지전 춤, 극락무, 가수 김승환의 추모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마이산 탑사의 천지탑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별무대의 상단은 영산작법 지화장엄 명인 도홍 스님이 49일간 제작한 보상게, 돈(금,은)전,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국화 등 50여종 4900송이의 지화로 장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원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봉안

대한불교승가공동회 증명, 사리탑 제막 및 법요


대한불교승가공동회가 11월 14일 울산 대원암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사리 봉안식' 을 봉행했다.

울산 대운산 대원암(회주 도안)은 11월 4일 '석가세존 진신사리 이운 및 5층 사리탑 제막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승가공동회가 증명하며 범패의식을 전담했고, 대한불교 무량회와 대한불교 일불회 등 스님들과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대원암 회주 도안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 도량에 나투심을 찬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대운산하 대원암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식 및 사리탑을 건립하게 된 것을 무한한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승가공동회 회장 도연 스님은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참된 보살행자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원암에 봉안한 진신사리는 2007년에 스리랑카 D.B. 문화부장관이 밀양 사천왕사 주지 대풍 스님에게 전달한 진신사리이다. 당시 대풍 스님은 진신사리 25과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9과를 분과해 대원암에 이운 봉안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건 1212주년을 기리며

영천 은해사 11월 21일 개산대재



영천 은해사(주지직무대행 혜안)가 11월 21일 템플스테이관 육화원 앞 특설무대에서 창건 1212주년 은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과 회주 돈명 스님, BBS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은해사 주지직무대행 혜안 스님 및 정홍규 천주교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최기문 영천시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박봉규 은해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도솔암 7차 지장기도 반환점 돌아

1029일간 천도재 중 490일 천도



해동제일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제7차 1029일 기도 중 490일째가 되는 10번째 기도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은 11월 21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도솔암을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의 7차 지장기도 중 10번째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도솔암의 1029일 지장기도는 2023년 5월 20일까지 1029일간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하고 매 49일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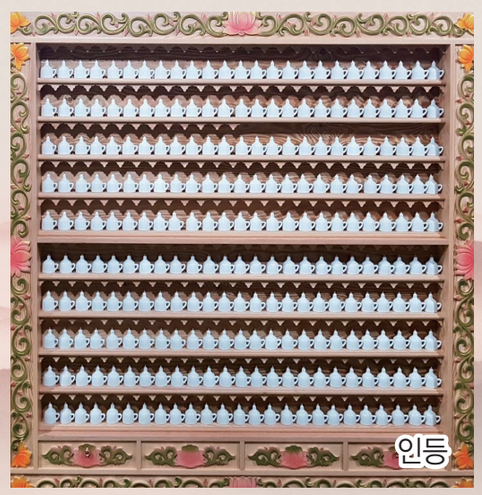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